

YTN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뉴스
2014
JANUARY
Vol. 108
동서
남북



출발! 2014
YTN



201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해는 상암동 시대를 열어갈 희망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이를 바탕으로 개혁과 혁신으로 한 단계 높아진
YTN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선보이겠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 속도성 등 기존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심층성과 유용성 등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C O N T E N T S

커버스토리	시장 신년사 상암동 시대, 한 번 더 도약할 것입니다	004
핫 이슈 1	2013 미디어 어워드 최고의 뉴스 채널 YTN	006
핫 이슈 2	2013 YTN 미래전략 포럼 한정호 '창조 한국, 더 밝은 미래' 이은구 광대역 LTE 속도로 지나간 준비 기간	008 010
ZOOM IN 1	출발! 2014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라 출발 2014/ 공채 15기 마정림 <정찬배 뉴스정석> 스태프 24시	012 014
ZOOM IN 2	출발! 2014 상암 시대가 다가온다 강성웅 우리는 간다. 새로운 광장으로!	016
YTN 대상 특종기	장성택 실각 및 측근 망명 요청 보도 박순표 간결하고 달콤한 답장 "속보처리"	018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이준승 손기정 정신은 대한민국과 함께 달립니다	020
YTN 장애인 자막 방송 1년	김인화 속기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속보'	022
YTN 월드 1	제10회 해외리포터 교육 김영호 10기 리포터들의 동행	024
YTN 월드 2	내가 본 세상을 YTN과 공유하다 권은정 아프리카의 구석구석을 전합니다	026
YTN 라디오 1	숫자로 풀어본 <2014 라디오> 김우성 YTN 라디오의 특별한 사적연산	028
YTN 라디오 2	[뉴스 정면승부]가 마련한 특별한 시간 신아람 2014년 새해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030
YTN 웨더	우주 소식이 궁금할 땐 <별별이야기> 김현아 머릿속에 있던 별자리가 눈에 보인다	032
YTN 사이언스	창경궁으로의 초대 김영록 창조, 경제 궁전 그 문이 열린다!	034
게시판	게시판	035

상암동 시대를 여는 올해는 YTN에 기회의 시기입니다.

시청자를 중심으로, 개혁과 혁신으로
한 번 더 도약할 것입니다.



YTN 사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올해는 YTN에 있어 뜻깊은 해입니다. 수송동에서 10년, 그리고 이곳 남대문 사옥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암동 시대를 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개국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방송 전용 시설이 갖춰진 상암동 사옥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YTN의 개국 작업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국 초기

열악한 케이블 TV 산업 환경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를 겪으면서 6개월 동안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존폐의 기로에 섰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YTN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2004년 3월, 이곳 남대문 사옥으로 옮겨올 당시 YTN은 한 개 채널에 자산규모 천3백억 원, 매출 59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YTN은 YTN DMB와 YTN 라디오 등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케이블을 넘어 지상파로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채널 수도 사이언스와 웨더 채널을 개국해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회사의 자산 규모는 10년 전보다 2.5배 이상으로 늘었고 매출액 또한 10년 전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성장과 발전은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나누면서 달려온 YTN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냉혹한 방송환경과 어려운 경제상황은 우리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해 미래를 낙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YTN의 상암동 시대는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밝힌 대로 회사는 상암동 사옥이전에 맞춰 현 남대문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사옥 건립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를 청산하고 무차입 경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회사의 임대매출이 줄어 들고 방송시설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늘어나게 돼 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약화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YTN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YTN이 매출 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개선을 이뤄낼 경우 YTN은 무차입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YTN의 최대상품이자 무기인 뉴스의 경쟁력



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편 등과의 치열한 방송 경쟁 환경 속에서 상암동 시대는 분명 YTN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경쟁력 높은 기획을 통해 YTN의 변화된 모습을 시청자에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새로운 C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속보성 등 기존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심층성과 유용성 등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가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청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뉴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신사옥 TF 팀과 보도국 기술국 등 관련 부서들은 사옥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완전 디지털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스튜디오와 방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YTN의 방송 내용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YTN의 매출을 끌어 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종편이 출범한 2011년을 정점으로 답보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늘어난 치열한 환경 속에서 광고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마케팅국과 미디어사업국 그리고 경영기획실과 미디어전략실 등 회사의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서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경영기획실과 미디어전략실을 중심으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YTN 구성원 모두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추가로 제공해줄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를 구체화 시키는 노력에 동참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



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원 여러분들에게 비용 절감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스 경쟁력 강화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나가는 것이 회사의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개선되겠지만 영업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익구조 개선이 최대 당면과제의 하나인 만큼 회사가 비용관리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사원 여러분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원 여러분, 올해는 YTN이 새로운 상암동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미래 YTN 모습을 결정지을 시금석이 되는 해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기획, 그리고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과 혁신을 이어갈 때 YTN은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노사 분규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적지 않은 양금과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노사는 대화를 늘려가며 그동안 벌어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풀지 못한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서로가 인내와 양보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년 많은 고비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YTN의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은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위기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봄 새롭게 출발할 상암동 시대를 기다리며 올해도 사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일 사장 배석규

최고의 뉴스 채널

YTN

신뢰성과 유용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성 분야에서는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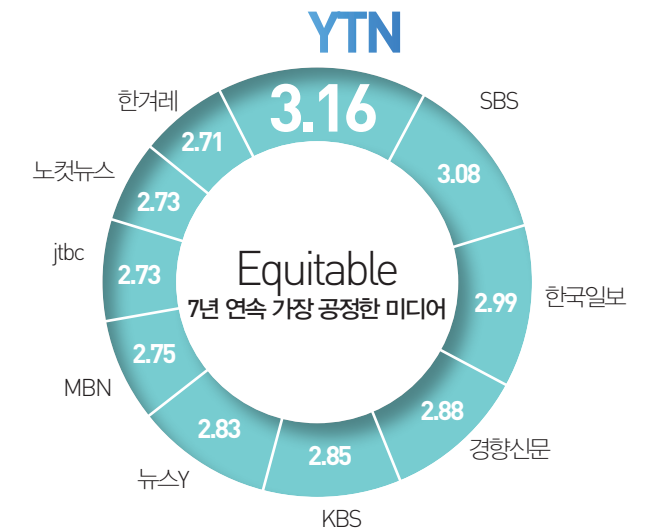
신뢰성 첫 1위

20-30대 유용성 1위

7년 연속 공정성 1위

대한민국의 대표 뉴스 채널 YTN이 올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선정됐다. 또 20-30대에게 가장 유용한 미디어로, 그리고 7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뽑혔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한국언론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디어 평가 결과이다. YTN은 뉴스의 정확성과 전문성 등을 평가한 신뢰성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또 뉴스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 유용한 미디어 부문에서도 20-30대에게 1위를 차지했다. YTN이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실시한 평가에서 신뢰성과 유용성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정성 분야에서는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평가에 참여한 언론학 교수들은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미디어 수는 많아졌지만, 결국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신뢰성과 공정성 다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한국언론학회 회원 전수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YTN 등 보도채널과 지상파, 종편, 일간신문 등 모두 17개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YTN은 지난해 10월 광고주협회 조사에서도 종편채널을 포함한 케이블TV 채널 중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차지해, 대표 뉴스전문채널로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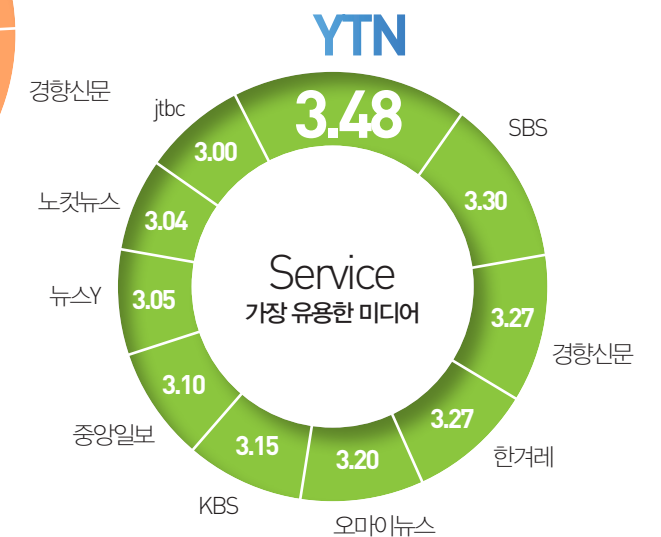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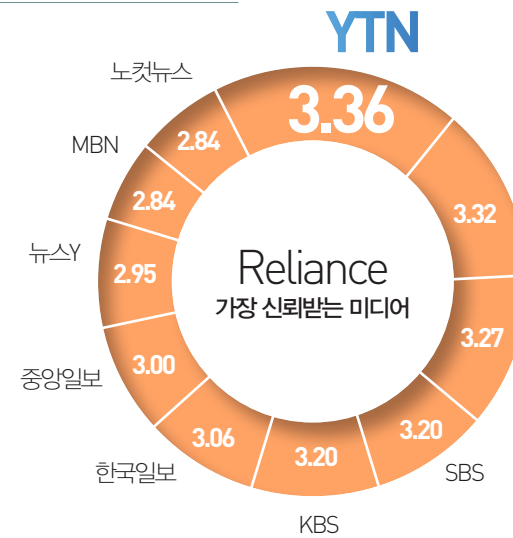
YTN	3.36
한겨레	3.32
경향신문	3.27
SBS	3.20
KBS	3.20
한국일보	3.06
중앙일보	3.00
뉴스Y	2.95
MBN	2.84
노컷뉴스	2.84

7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1위

YTN	3.16
SBS	3.08
한국일보	2.99
경향신문	2.88
KBS	2.85
뉴스Y	2.83
MBN	2.75
jtbc	2.73
노컷뉴스	2.73
한겨레	2.71

가장 유용한 미디어 1위 (2-30대)

YTN	3.48
SBS	3.30
경향신문	3.27
한겨레	3.27
오마이뉴스	3.20
KBS	3.15
중앙일보	3.10
뉴스Y	3.05
노컷뉴스	3.04
jtbc	3.00



'창조 한국, 더 밝은 미래'

한정호 |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장



'창조 한국, 더 밝은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3 YTN 미래전략포럼'이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YTN이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준비한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미국 하와이대 짐데이토 교수를 비롯해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등 국내외 최고의 석학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 짐데이토 교수의 기조연설 '미래의 세계-정보화를 넘어 꿈의 사회로'와 최재천 원장의 특별강연 '통섭을 통한 창의 융합'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해법'을 다룬 '세션 1'과 '한국 ICT 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션 2'도 잘 준비된 발표와 참석자들의 열의가 한데 어우러진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이다. YTN은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앞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미래전략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대역 LTE 속도로 획~ 지나간 준비 기간

이은구 |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PD

2013년 10월 14일 'YTN 미래전략포럼'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가 당겨졌다. 보통 경험상 하나의 포럼을 준비하는 평균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이다. 그러나 한 달 보름 남짓한 짧은 시간 내에 포럼을 준비해야 했다. 미래전략포럼과 같은 행사는 주최 측의 사세(社勢) 및 네트워크, 콘텐츠 기획력,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 행사 전반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소속원들의 자발성 등이 성패를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지식 사업이다.

무엇보다 행사운영 경험 여부 및 노하우의 축적 수준이 사업의 질적 수준과 성패를 결정하는 사업이기에 2008년 '월드 사이언스 포럼' 이후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주제의 첫 포럼이기에 솔직히 부담이 앞서기도 했다. 준비기간 내내 시간이 없어서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 같이 운영준비를 돕고 있는 대행사 직원들과 매일 밤샘 업무를 하며 때로는 달달 볶기도 하고, 혹시나 빠트린 부분이 없는지? 더 낫은 프로그램, 더 낫은 행사진행을 위해 수차례 고민 고민을 하며 포럼을 준비했다.

심지어는 자기 전에 누워서도 천장에 포럼 행사장 무대와 짐데이토(기조연설자) 얼굴이 보일 정도로 온통 머릿속에는 포럼 생각뿐

이었다. 이러한 증상은 고등학교 시절 한창 당구를 배울 때 천장에 당구대와 공을 그리며 왜 공이 그리로 안갈까? 한참을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그 이후 오랜만에 이런 증상을 겪어 보게 됐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포럼을 준비하는 한 달 반 동안이라는 시간이 정말 광대역 LTE 속도로 획~ 지나간 것 같다. 대다수의 언론사가 국제 포럼을 진행한다. 언론사들이 포럼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언론사 이미지 제고'와 '공적 서비스 제공'이다. 회사의 경영 및 재정적인 측면서 본다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한 기회의 요소이기도 하다.

포럼 기획, 운영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포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개인, 기업, 정부)을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포럼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포럼을 통해 고객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 '포럼을 통해 무엇을 제공하고 서비스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누구나 머릿속에서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변화한다. 과거 밥만 먹

삶의 질적 향상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꿈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왼쪽부터 이은구 PD, 한정호 팀장



어도 행복했던 시대를 거쳐 도시화, 첨단화되고 삶의 질적 향상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미래는 '꿈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번 미래전략포럼 기조연설자인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데이토 교수가 말했다. 이번 '2013 YTN 미래전략포럼'을 통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상상력을 펼쳐 꿈과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2013 YTN 미래전략포럼'은 성공적이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전적으로 '2008년 이후 경험이 전혀 없는 YTN의 첫 행사였음을 생각할 때'라는 전제로 내려진 것임을 직시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전략포럼이 YTN의 대표적인 사업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치 높은 지식향연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한 달 보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불철주야 포럼을 함께 준비한 미래전략포럼TF팀 한영규 국장과 한정호 팀장께 감사하고 고맙다. 미래전략포럼TF팀 한영규 팀장과 한정호 부장, 이은구 PD는 '2013 YTN 미래전략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공로를 인정받아 비보도 부문 YTN 대상을 수상했다.





출발 2014! 공채 15기

1 자기소개 2 내가 꿈꾸는 2014년은



이형원 | 방송기자

85.9.5 | 성균관대 법학과

- 1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인 이형원입니다.
- 2 힘들지만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한 해



임성호 | 방송기자

86.12.13 |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 1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살고 싶은 신입 기자 임성호입니다.
- 2 YTN 방송기자 직함 밑에 쓰인 제 이름을 봤을 때 기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014년에는 방송기자가 갖춰야 할 기본기를 성실하게 닦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험거워지지 않는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철희 | 방송기자

85.8.13 | 경인교대 영어교육과

- 1 기자가 되고 싶어 초등학교 교사를 포기한 남자.
- 2 '제대로 된 기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장을 수없이 발로 뛰고 선배들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배우겠습니다. YTN에서 "우철희 참 잘 뻘었다"는 말이 회자할 수 있도록 정말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오 | 촬영기자

84.2.29 |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 1 열정, 끈기, 노력! 저의 세 가지 신조를 잃지 않는 촬영기자가 되겠습니다.
- 2 합격이라는 말, '이제야 이 일을 시작할 자격을 갖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이라는 자격의 가치를 항상 되새기며 2014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경수 | 방송기자

85.10.21 | 고려대 언어학과

- 1 방철함과 따뜻함을 겸비한 기사를 꿈꾸는 김경수입니다.
- 2 2014년 말에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30년 후에 2014년을 추억해보았을 때, 한 치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고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박유동 | 그래픽디자이너

83.9.14 | 동서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 1 영상의 메이크업은 그래픽이다! 최고의 디지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 2 2014년에는 YTN과 저에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YTN의 그래픽을 위해 최고와 최선을 다하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최아영 | 방송기자

87.3.24 | 이화여대 국어교육학과

- 1 이제 막 첫 발을 떼는 신입으로서 떨리고 설렙니다. 앞으로도 제 일에 대해 늘 가슴 뛰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 2 저는 2014년이 제 삶에서 잊히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역량을 배우며 10년, 20년 후에도 2014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배 뉴스정석> 스태프 24시

마정림 | <정찬배 뉴스정석> 작가

Prologue

뉴스 정석을 만드는 사람들

쉽고 빠른 뉴스, 뉴스정석 드림팀을 소개한다.
촌철살인의 달인 정찬배 앵커, 뉴스정석의 꽃 장민정 앵커, 돌발유머의 신 이강문 피디, 만능 뉴스테이너 강진원 기자 그리고 이미경, 마정림 작가, 우리 팀 막내 정은주, 김세나 AD까지 총 여덟 명의 스태프가 뉴스 정석을 꾸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문 PD, 정은주, 김세나 AD, 정찬배 앵커, 마정림 작가, 장민정 앵커, 이미경 작가, 강진원 기자

AM 06:00 새벽... 아이템, 구성 회의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20층 회의실. 8명의 스태프가 모여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전날 있었던 뉴스거리들을 부지런히 풀어 놓는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오늘의 뉴스로 선정. 이제 일사천리로 움직임 차례다.

AM 07:00 이제는 섭외 전쟁

남들은 곤히 단잠에 빠져 있는 이른 새벽. 섭외 전쟁 시작이다.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통에 불을 붙인다. 새벽 섭외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의외로 새벽형 인간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AM 08:00 슬슬 원고 작성 좀 해볼까?

뉴스에 나갈 그래픽을 맡긴다. 뉴스에서 아이템만큼 중요한 게 비주얼이다. 쉽고 빠른 뉴스를 모토로 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더욱 쉽게 뉴스를 이해하는데 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YTN의 그래픽실도 이 시간만은 뉴스정석과 한 팀이다.

AM 09:00 아... 속보!

뉴스 1시간 전 작가들은 원고를 마무리 짓고, 피디들은 런다운을 짜기 시작한다. 그래야 한다. 그런데 속보가 터졌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제로 베이스가 된다. 누굴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할 시간도 없이 다시 초 집중해야 한다.

AM 10:00 우아한 백조? 아니, 물장구치는 백조처럼..

띠띠띠. 땡~! 뉴스가 시작되면 뉴스 룸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이제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앵커는 냉정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서 계속 물장구를 치고 있는 백조 같고 피디는 빈틈없이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 앵커보다 더 많은 말(일명 쿨)을 한다. 작가는 빠진 것이 없는지, 출연자는 도착했는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AM 11:00 살아있는 뉴스를 위해..

앵커는 백두혈통 3세대에 대해 앵커 리포트를 썼고 작가는 김정남에 관련된 각종 설을 그래픽과 원고로 정리했으며 피디는 녹취와 영상 구성을 준비했다. 총알 장전. 발사 직전이다! 그런데...!! 북한 조선 중앙TV에서 중계한 김정일 추모대회 영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 마이 갓! 스타트 버튼조차 누르지도 못한 채 시간 내내 중계 영상을 내보내야 했다.

AM 12:00 평화의 시간?

뉴스가 끝났다. 준비한 아이템을 방송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고 없었으니 다행.. 거기다 오늘은 실시간 시청률도 꽤 괜찮았던다. 그걸로 위안으로 삼아라지.. 긴장상태에서 에너지를 2시간 뉴스에 모두 쏟아 붓고 나니 점심시간이지만 밥보다 딱 10분. 눈감고 있을 곳이 더 간절하다.

PM 2:00 각자의 집으로..

오늘 방송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내일 방송할 내용을 예상해 본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진짜 회의는 6시 카톡방에서..라는 말을 남긴 채 뉴스 정석팀은 각자의 집으로 GOGO!!

PM 6:00 카톡~ 회의

“까톡~” “까톡~” 오후 여섯 시, 오늘도 어김없이 카톡방이 날 부른다. 열심히 손가락 회의를 하고, 열심히 섭외 리스트를 작성해 섭외한다. 내일 또 다른 뉴스가 생겨 이 모든 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하더라도 우리의 회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쉽고도 빠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PM 8:00 퇴근은 언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다. 벨 소리에서부터 벌써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역시나 갑자기 끼어든 아이템. 모든 사람이 퇴근한 이 시간에 사람을 찾아야 한다. 휴대폰 안에 섭외 리스트는 늘어가지만.. 그들은 이미 퇴근하고 없다. 아.. 나도 진정 퇴근하고 싶다.

Epilogue

늘 깨어있는 뉴스정석

보시다시피 뉴스정석은 24시간 쉬지 않고 깨어 있다. '쉽고 빠른 뉴스'를 모토로, 그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쉽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불철주야 노력 중!





우리는 간다, 새로운 광장으로!

강성웅 | 신사옥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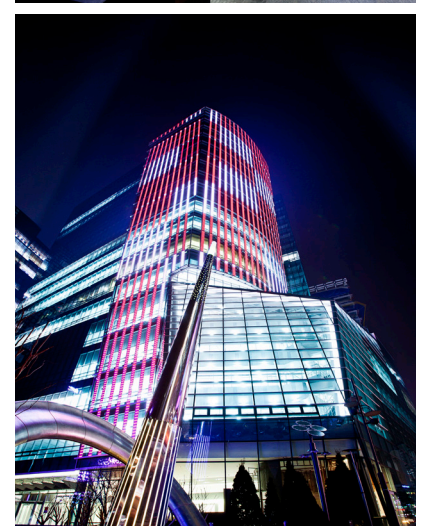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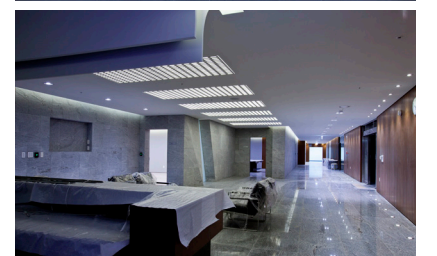
YTN이 오는 4월 서울 상암동 신사옥 'YTN NEWSQUARE'로 이전할 예정이다. 2004년 남대문사옥으로 이사한 지 꼭 10년 만의 일이다. 1993년 종로구 수송동에서 창사를 한 시점부터 따지면 대략 20여 년 만이다. YTN은 수송동 시대, 남대문 시대를 거쳐 이제 '상암동 DMC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DMC(Digital Media City)로의 이전, 그것은 YTN에 무슨 의미인가? 상암동 DMC에서 'YTN NEWSQUARE'의 위치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YTN은 CJ E&M 본사, MBC 본사, SBS 자회사들, 그리고 동아미디어에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모두 자타공인 미디어업계의 최고 기업들이다. 우리가 새 동지를 틀 곳은 맹수들이 으르렁대는 '사바나의 초원' 한가운데나 마찬가지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미디어업계의 무한 경쟁은 하루 이틀 전의 얘기가 아니다. 준비된 자에게 약육강식의 초원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초원에서 강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개방'(Openness)과 '혁신'(Innovation)의 정신이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성을 부수는 자는 흥할 것이다." 과거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 굳게 믿어온 생존의 철학이다. 벽을 허물어 경쟁을 즐기고, 새로운 대지를 찾아 끊임없이 떠나는 것 초원이 가르쳐준 이 평범한 지혜가 '개방과 혁신'이다. 그들은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제국을 세웠다.

YTN DMC 신사옥의 명칭은 'YTN NEWSQUARE'다. NEWSQUARE에는 NEW(새로운)+SQUARE(광장)이란 뜻이 있다. NEWS(뉴스) + SQUARE(광장)란 의미도 된다. '광장'은 한 지역의 중심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초원과 마찬가지다. 반대로 '개방과 혁신'에 주저 없이 나선다면 우리가 중심에 우뚝 서서 그들을 호령할 수 있다. 올해가 '靑馬의 해'라고 하니 드넓은 벌판으로의 이사가 더욱 기대된다.



간결하고 달콤한 답장 “속보쳐라”

박순표 | 정치부 차장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에게서 불쑥 전화를 받은 것은 12월 3일 오후. 국회팀의 오후가 늘 그렇듯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을 때였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응 나야 잘 지내지? 근데 그거 알아?” “뭐요?” “장성택이 실각되고 주변 인물이 처형됐어” “징후인가요 팩트인가요?” “둘 다야. 다음에 또 연락할게.” 사실 통일외교팀을 출입해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장성택이 북한에서 ‘잘나가는 사람’ 정도만 알았지 어떤 비중이 있는 인물인지 잘 알지 못했다.



아무튼,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정보당국자에게 물었다. “형님, 장성택이 잘렸다면요, 주변 인물은 처형당하고요?” “너 그거 어디서 들었니?” “형님보다 높은 사람이 알려준 이야기인데 믿어도 되겠죠?” “.....(침묵)” “국회 정보위에 브리핑할 계획인가요?” “터지면 하지 않겠나..”

순간 머리가 복잡했다. 두 취재원의 신뢰도나 기관 내 위치를 감안하면 당장 속보를 쳐도 무방했다. 그러나 마지막 확인은 필요했다. 또 다른 취재원에게 문자를 넣었다.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장성택 실각. 주변 인물 처형. OK?” 답장이 오는 5분이 너무 길었다. 그러나 답장은 간결하고 달콤했다. “속보쳐라ㅋㅋ”



곧바로 속보 문발과 함께 단신 3문장을 넣었다. 정확히 12월 3일 16:38분. 속보 이후 통일부 출입 김준영 기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후속 기사 준비를 부탁했다. 17시 정각에는 전화 연결과 함께 특보에 돌입. 내근 중이던 최명신 선배가 스튜디오로 올라갔고, 국회팀에서는 오승엽 선배 등이 장성택 관련 사실을 전화 연결 중 계속 토스해줬다. YTN 속보가 전파를 타는 사이, 다른 국회팀 기자들이 우리 방 주변을 기웃거렸다.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 사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관련 사실을 확인했고, 이강진 기자가 쩍싸게 TVU를 연결했다. 이렇게 장성택 실각의 특보가 시작됐다.



6일 장성택 최측근 인사가 베이징으로 도피해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신병을 보호하고 있다는 리포트도 내보냈다. 사실 이미 같은 취재원에서 제보 받은 내용이었지만 망명 요청 인사의 신변 안전 국익 등을 고려해 보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한 조간신문이 제3국에 망명 요청을 했고, 신변은 중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더는 기사를 묵힐 이유가 없어 곧바로 사실을 바로잡아 출고했다. 모든 언론이 기사를 받았다.



11일에는 장성택의 숙청이 쿠데타 가능성 때문이라는 기사도 내보냈다. 모든 언론이 부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때 처음으로 ‘쿠데타’란 단어를 처음 꺼냈다. 북한이 특별군사재판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고, 관련 보도가 계속 잇따랐다. 현재 국정원은 YTN에 관련 정보가 흘러간 배경에 대해 내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타사는 특별취재팀을 꾸렸다. 운 좋게 10일을 특종으로 끌어왔지만 사실 국회팀원들 모두가 특종기자다. 괜한 말이 아니다. 일이라는 게 한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 나머지는 그 사람의 일을 메꿔야 팀이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팀 모두에게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 묵묵히 후속 보도를 맡아준 행정팀에게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한마디. 누가 뭐래도 우리 회사 올해의 특종은 ‘갑을 논쟁’ 보도다. 다만 12월에 장성택 사건이 터진 게 내겐 행운이고, 사스마리들에게 불행일 뿐이다. 올해의 특종팀, 이종구 캡을 비롯한 사스마리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너희가 우리 회사를 지탱하는 특종기자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밥은 꼭 살게”



손기정 정신은 대한민국과 함께 달립니다

이준승 |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



YTN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 이준승입니다. 2013 YTN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2005년 재단이 설립되면서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YTN과 함께 한 지는 2009년 5회 대회부터였으니 벌써 4년째입니다. YTN과 함께하며 대회도 성장해 이제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국내·외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민 축제이자 메이저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신 마라톤 동호인들의 성원과 참여 그리고 묵묵히 굶은일을 마다치 않고 봉사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손기정기념재단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참가자 여러분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의견 반영과 다른 대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콘셉트 개발 및 특별 이벤트 등 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는 손기정 선수의 생애 의미로서의 평화를 시작으로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진각에서 개성을 왕복하는 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가 분단과 대치가 아닌 가장 평화가 필요한 나라, "평화"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이 기억되는 국가 브랜드의 변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같이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2013 YTN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석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과 대회를 후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협찬 기업 그리고 교통 통제로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해주신 송파구민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속기사가 제일 두려운 것은 ‘속보’

김인화 | 편성운영팀 속기사

가끔 말이 너무 빠르시거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하다.
조금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달라고..



왼쪽부터 강은애, 김인화 속기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중”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이 문구는 공중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방송,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방송 시작 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이 있는 YTN에서 신입의 마음으로 자막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YTN 자막방송은 보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자들의 리포트를 송출하게 된다. 단, 전문가나 외부 인사 출연 시에는 따로 대본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카스라는 속기 키보드를 이용해 방송하고 있다. 기자 리포트의 경우, 보도정보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 주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다 질 높은 자막 방송을 위해 외부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기에 자막 방송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막방송이란 쉽게 말해 청각장애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막으로 내보내 주어 TV를 일반 사람들처럼 볼 수 있게 해 준다. 화면 아래에 지나가는 예고자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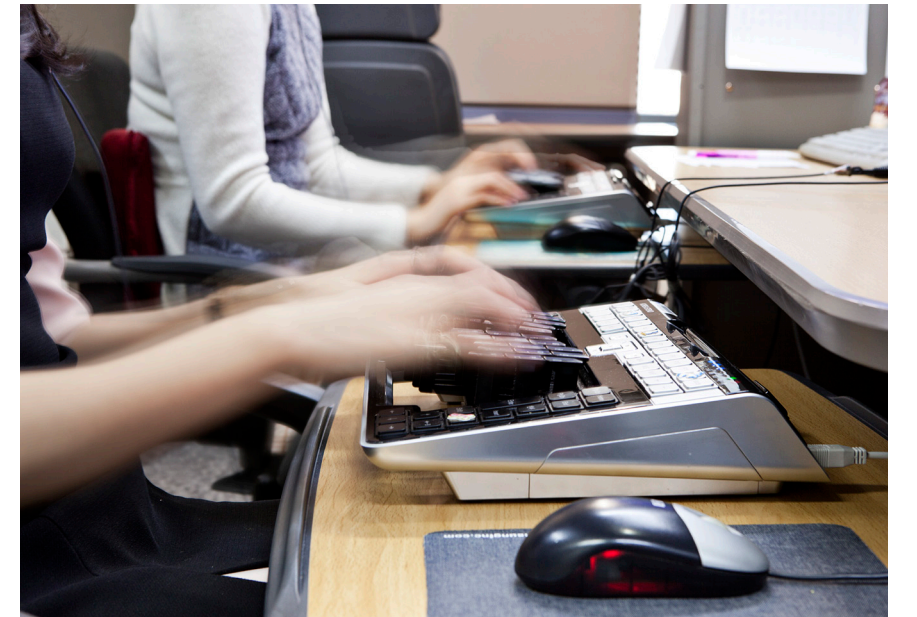
아닌 말 그대로 앵커, 기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자막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만큼 듣는 것에 예민한 속기사들은 말 잘하시는 분들을 좋아한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할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 적다 보면 생각보다 조리 있고 깔끔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뉴스가 예능보다 조금 무겁지만 방송하기엔 편하면서도 쉬운 이유다. 가끔 말이 너무 빠르시거나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하다. 조금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 기다려주지 않고 얘기할 때가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일일이 구분을 해 주기 때문에 자막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끼어드는 말이 나가면 문장 또한 끊겨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제일 두려운 단어는 바로 “속보”이다. YTN 자막방송의 생명은 보도정보시스템인데 3.20 사이버테러가 일어났던 날은 정말 이곳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날로 꼽을 수

있다. 보도정보시스템에 자료가 올라올 수 없었을 뿐더러 광고도 없이 장장 3시간을 1분도 쉬지 못한 채 열심히 자막을 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정치권 이슈나 북한에서의 도발(핵실험, 개성공단 사태) 또 커다란 사건·사고(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사고, 삼성동 헬기추락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날은 출연이 많고 보도정보에 올라오지 않는 자료들이 많아서 여유가 없고 힘든 날이다. 언제나 뉴스만 보다 보니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에 항상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 사건·사고 없는 조용한 날들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평소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YTN에서 일하고 난 뒤 하루 8시간 이상을 거의 1년째 뉴스를 보다 보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쌓이는 지식이 많아서 좋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에 정말 많이 공감하는데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정확하고 질 높게 자막을 전달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실시간 속기를 해야 하는 자막방송 속기사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를 같은 팀처럼 잘 챙겨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편성운영팀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도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올리는 많은 분이 실시간 장애인 자막방송을 내보내기에 수월하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10기 리포터들의 동행

김영호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리포터



W WEST 0024

서울의 거리는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 현 기증을 느끼며 미팅 장소인 숙소 로비에 도착했다. 약간의 기대와 흥분이 교차하고,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듯이 익혔던 얼굴들과 처음 본 얼굴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지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10기 리포터 교육생들의 동행은 시작됐다. 우리가 묵을 숙소와 교육 장소는 명동 근처에 있었다.

오유철 차장의 인솔 하에 다 같이 교육장으로 향하는 길.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 속에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아침 풍경이었다. 애 툃함과 그리움도 잠시. 교육장서 받아든 교육 일정표! 다들 '멘붕!' 아침 9:30부터 12:00, 중식, 13:30부터 18:00, 그리고 저녁. 5일 동안 일정하게 짜인 시간표이다. '그래도 오늘은 첫 날인데 쉬엄쉬엄 일찍 끝나겠지' 라는 바람은 정말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둘째 날. 이틀째 교육이지만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특히 방송 리포팅 교육은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에게겐 아이템 작성

부터 취재영상까지 모티브를 제시해 준 유용한 교육이었다.

셋째 날은 시차적응 꼭짓점에 이른 것 같았다. 다들 얼굴이 말이 아니다. 서로 바라보며 힘없이 눈빛만 보낼 뿐. 그 눈빛 속엔 오늘은 좀 졸자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 그때 강의실로 들어 선 순간 환한 섬광이 반짝거린다. 빨강 재킷을 입은 최영주 앵커. 드디어 시차적응 끝인가?! 모두들 환한 얼굴로 반짝 거리고 있다. 동티모르도 반짝, 태국, 필리핀에서도 반짝, 이집트, 인도네시아도 반짝. 일본, 호주, 브라질 여자 별들도 반짝 거리고 있다. 텍스트 없이 경험과 현장 노하우의 강의는 우리의 정신 줄을 팍 붙잡고 흡수하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나이. 오유철 차장!!! 우리의 별빛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점심 안 먹어도 되는데... 아쉬운 만남과 강의를 끝내고 그 날 우리는 북촌의 추억을 만들었다.

넷째 날에는 아침 강의 후 드디어 보고 싶었던 YTN 본사 견학이 있었다. 하지만 반나절의 눈요기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어 해

방팀 식구들과 함께한 간담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의 고충과 문제점을 토론했고 솔직하고 깔끔한 답변으로 이어진 유용한 시간이었다.

다섯째 날. 마지막 교육 날이다. 시차가 어느 정도 적응되는가 싶더니 또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 마지막 강의는 가슴에 담아 가려는 심정으로 강의실로 들어섰다. 오늘의 마지막 교육은 촬영과 편집으로 오전, 오후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 리포터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각인시킨 듯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이 돋보였다. 감사할 뿐이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그날 밤. 사장님 주재 만찬이 있었다. 사람 좋게 생기신 사장님이 등장하시고 이어 유례없는 전리포터들에게 직접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장님과 우리 모두 소주잔이 오가고 자리를 바꿔 가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이 이 밤을 더욱 아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곳은 노래방. 음

E EAST 0025

식을 잘근잘근 맛있게 씹듯 가사와 음절의 연결이 우리를 기절하게 한 사장님의 트로트 노래부터 우리 리포터들의 재치 있는 곡 선택은 모두를 무너지게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밤을 미련 없이 후련하게 보냈다. 그러나 웃고 노래하는 그 얼굴들 속에는 진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맺는 말. 짧은 일정 속에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10기 해외리포터 교육생 대표로 교육과 숙식 모든 부분에서 조금도 불편함 없게 배려해주신 사장님과 해방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특별공헌자로서 YTN에서의 위치와 기대로 부응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구석구석을 전합니다

권은정 | 케냐 리포터

저는 아프리카 케냐를 기반으로 영상 제작사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27살의 청년, 권은정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며 다양한 모습을 재발견해, 영상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랑 배낭 2개를 짊어지고 케냐로 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에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를 다니긴 했지만, 케냐는 처음이었고, 아예 터전을 잡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탐험가가 꿈이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프리카에 미쳐 오직 아프리카만 꿈꿨습니다. 아프리카를 누비며 영상을 만들며 살기 위한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이렇게 케냐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다행히 좋은 현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창업했고 함께 영상을 만들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분의 소개로 YTN의 리포터로 활동해 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케냐에서 한국,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역할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PD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케냐에만 있지 않고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닐 건데 케냐 말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이야기들도 전해도 되나요?' '아프리카의 한국, 한국인에 관한 것만 취재하는 것보다 다양한 아프리카의 진짜 이야기들을 취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리포터로 일하기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저는 이렇게 들떠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행히도 PD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제 비전을 펼치기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본 세상을 공유할 수 있는 YTN이라는 친구를 얻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 지구 위 하나 남은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서둘러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조건 없는 원조는 아프리카를 더욱 병들게 하고, 애정과 관심 없이 욕심으로만 진행하는 투자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는 그저 그곳에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공정하게 교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구석구석의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대단하고, 어떨 때는 배꼽 빠지게 재미있었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새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답답하거나 위험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장소는 없지요,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아직 발견해야 할 곳이, 그래서 제대로 전달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든든한 친구 YTN의 손을 잡고요.



2014년 YTN 라디오의 특별한 사칙연산

김우성 | YTN 라디오 뉴스제작팀 PD



Chapter. 01 나누기 $9 \div 2 = 94.5$?

청취자 한 분이 #0945로 문자 사연을 보냈습니다. “YTN 라디오 주파수 94.5는 9를 나눠 4.5가 되고 그걸 붙여 94.5로 읽지요 그 안에는 ‘나눔’이 담겨있어 주변 분과 나눠 들읍니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는 나눌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상한 셈법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와 시사 정보 음악도 자꾸 나눌수록 더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 공감의 뉴스, 공감의 음악이 있기 때문이죠. 2014년에도 늘 나누면 반이 아니라 배가되는 이상한 셈법은 계속됩니다.

Chapter. 02 더하기 $5+1=1$?

2008년 힘차게 첫소리를 쏘아 올린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FM채널’ YTN 라디오는 2013년 5주년을 지나 2014년 1년을 더해 6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첫 전파를 쏘아 올린 1주년의 열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개국 첫해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라디오 피플의 완소채널 어느 먼 훗날 99+1도 역시 1이 될 YTN라디오입니다!

Chapter. 03 빼기 $24-24=24$?

24시간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음악이 함께하는 YTN 라디오는 2013년 가을부터 모바일 앱 YES로 세계 어디에서나 함께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보내주시는 사연과 뉴스에 대한 공감은 24시간 밤낮없이 세계인과 공감할 YTN 라디오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 서울의 24시간이 지나도 우리 늘 세계의 24시간과 소통합니다.

Chapter. 04 곱하기 $1 \times 1 = \infty$?

라디오는 한 사람이 들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만 명이 듣기도 합니다. 2014년에도 출퇴근 길 버스와 택시에서 그리고 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소중한 한 분의 청취자가 또 다른 한 분의 청취자를 만나 그 숫자가 무한대로 넓어지는 세상의 소리 창, 뉴스와 음악의 공감라디오 YTN 라디오의 행복도 무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YTN 라디오의 특별한 사칙연산은 계속됩니다.

2014년 새해,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신아람 | YTN 라디오 뉴스제작팀 PD

인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들이
추구해야 할
희망은 무엇일지
아름다운 언어로 함께
찾아봅시다.



퇴근길의 좋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매일 저녁 6시 10분! 직장인들의 퇴근길에 함께하는 똑똑하고 따뜻한 친구, 뉴스 정면승부! 따뜻한 카리스마의 김상우 해설위원이 하루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사건이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명쾌하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 청취자들과 함께 '개인의 내년'보다 좀 더 넓고 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뉴스 정면승부 2013-2014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뉴스 정면승부가 마련한

2013-2014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정치 이슈에만 매달리는 따분한 저녁 시사 프로그램은 가라! 뉴스 정면승부는 청취자들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각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십년 후, 이십년 후에 우리의 자식 세대가 만들어갈 사회상과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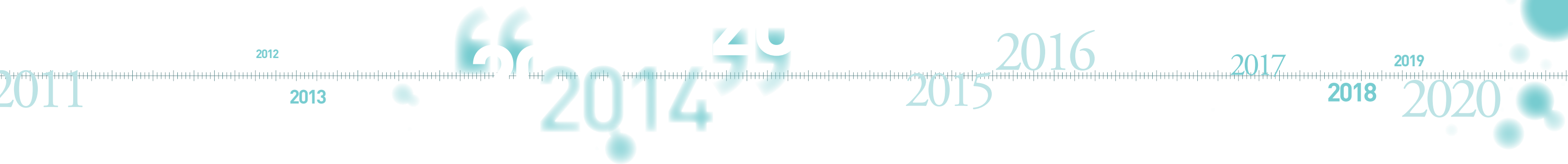
2014년을 맞아 뉴스 정면승부가 준비한 미래 이야기는?

새해, 1월에는 낭만적인 미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접처지고 있는 시인 고은 선생님과 함께 시 한 구절 읽을 수 없는 각박한 현재가 불러올 미래의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인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들이 추구해야 할 희망은 무엇일지 아름다운 언어로 함께 찾아봅시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집 한 권 직접 사본 적 없는 젊은 세대에 대해 세계적인 문학 거성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또 밤마다 떠오르는 사상을 풀어내느라 잠을 설쳐야만 한다는, 올해 여든둘의 청년 시인 고은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깜깜한 밤

과 같은 요즘이 찬란한 미래를 위한 필연의 시대일지, 문화와 감성이 죽어버린 절망의 미래의 전초전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파란 눈의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 교수와 함께 살펴보는 한국 전통문화의 미래에 대한 시간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1966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 훌쩍 빠져 버리게 된 시연부터 독일의 한국학 박사 1호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즐거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한편, 전통문화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인지, 한국의 유교문화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인지에 대해서도 노학자의 연륜을 통해 따뜻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2013년 12월에는 세계적인 석학, 미래학의 창시자 짐 데이트 교수와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초대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취임한 최재천 교수와 함께 통섭과 생태학 등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뜻깊은 방법, 한국의 미래를, 우리 자식 세대의 미래를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 그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94.5MHz! 매일 저녁 당신을 기다립니다!



머릿속에 있던 별자리가 눈에 보인다



반짝이고 아름답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며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었다.
단순하게 '별별이야기'를
진행하기 전까지!

김현아 |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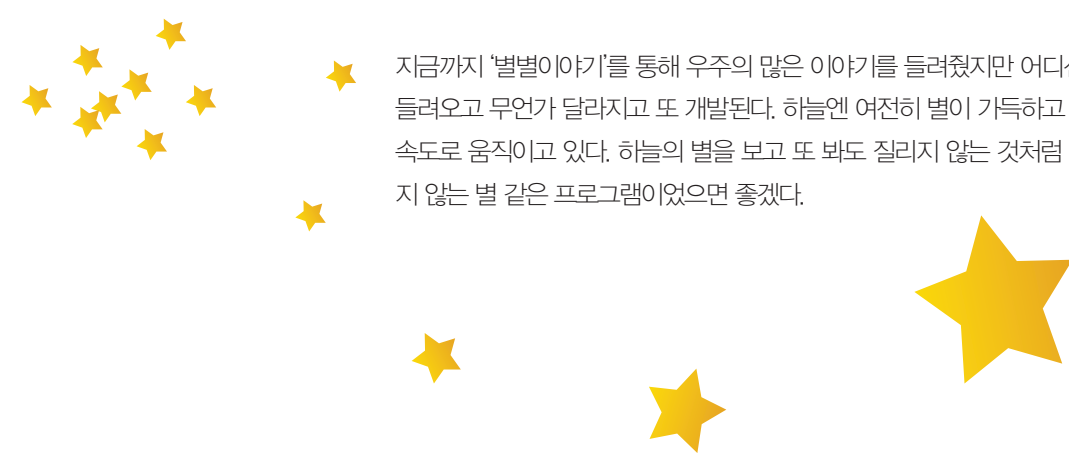
주변 친구들에게 '별별이야기' 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말했을 때 대부분은 별이 아닌 뭔가 특이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별별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천문 상식과 새로운 우주 소식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문현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어느새 '별별이야기'는 100회를 훌쩍 넘었다.

별 볼일이 참 많았던 하늘 이야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바로 별자리였다. 아무래도 운세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신화로 재밌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니 당연히 흥미로울 수밖에! 하지만 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저 신화와 운세만으로 친근했던 별자리들이 정말 하늘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건 '별별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한 후부터였다.

'별별이야기'와 함께하게 된 계절 겨울! 그리고 겨울은 반짝이는 밝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자랑하는 계절이기도 했다! 겨울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퇴근할 때면 이미 어두운데 그때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날 녹화한 별자리를 찾아보곤 했었다. 아는 별자리를 찾았을 때 의 그 기쁨이란!! ^^

그리고 별 박사 이태형 교수님의 별 사랑이야 말이 필요 없지만, 신기하게도 MC 한경진 씨도 별 보는 것을 좋아해 시간 날 때 별 보러 가기도 한다. 어쩜 이렇게 딱 맞게 만났을까! 언젠가 한번 다 함께 별을 보러 가봐야겠다.

지금까지 '별별이야기'를 통해 우주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무언가 달라지고 또 개발된다. 하늘엔 여전히 별이 가득하고 그 별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별별이야기'도 질리지 않는 별 같은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창조. 경제. 공전 그 문이 열리다!

김영록 | 사이언스TV본부 콘텐츠제작팀 PD



지난 12월 17일 첫 방송. 창조경제 공전이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 활짝 그 문을 열었습니다. <창경궁으로의 초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곳곳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 그 현장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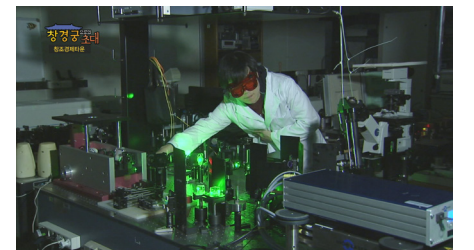
창조경제 · 창조경제!

창조경제, 요즘 참 많이들 말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만큼이나 “창조경제가 뭐예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창경궁’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더 나아가 나도 창조경제 실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밤에도 낮처럼 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대한 발명과 발견도 하나의 작은 씨앗, 물음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나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음표를 향한 고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발휘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바로 창조경제의 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창조경제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화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실제 아이디어 제안자와 이들을 돕는 전문가 집단인 멘토들을 직접 만나 들어봅니다. 창조경제! <창경궁으로의 초대>와 함께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신화의 주인공, 그들만의 Something Special

인류문명의 발전은 상상력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상상조차 못 했고, 또 누군가는 상상만으로 그쳤을 때 상상을 현실로 만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공한 그들의 이야기.



성공신화를 만든 그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주인공들이 발로 뛰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들어봅니다.

누구나 창조경제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람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없을까?'

연말 포상

YTN(대상·보도) 박순표 정치부 장성택 실각 및 측근 망명 요청 취재 보도 / YTN(대상·비보도) 한영규 미래전략포럼·IT탑장 한철호, 이은규 편성기획팀 2013 YTN 미래전략포럼의 성공적 개최 / **특별상** 구매팀 신사육 이전 방송장비 구매 및 이실공사 비용 절감 / 마케팅국 마케팅 매출 목표 달성 공로 / 매체협력팀 CATV 출력 이래 최악 위기상황 속 YTN 영향력 극대화 / 이강진 정치부 기관 인물 워딩, 그래픽 문발 등 개발 / 이종규와 12명 YTN 시간팀 갑의 황포, 올의 눈물 연속 보도 **모범사원상** 김현우 미디어전략팀 / 이영미 심의팀 / 정철민 인사팀 / 김윤순 총무팀 / 최동숙 관재팀 / 이근영 타워운영팀 / 임정우 마케팅기획팀 / 인혜숙 광고운영팀 / 김지선 정치부 / 전준형 경제부 / 안소영 국제부 / 장아영 스포츠부 / 송세혁 강릉지국 / 박동일 대전지국 / 유성래 대구지국 / 이상우 청주지국 / 두수진 편집부 / 이정미 편집2부 / 김기연 편집3부 / 우희석 그래픽팀 / 조해진 화면R&D팀 / 원종호 영상취재부 / 양준우 영상취재2부 / 김윤석 영상편집부 / 유영식 영상아카이브팀 / 신성원 편성기획팀 / 강민석 편성운영팀 / 김장아 제작부 / 정경남 인프라팀 / 오종근 장비관리팀 / 김형식 송출기술부 / 최상섭 제작기술부 / 조상우 제작기술1부 / 양태열 제작기술2부 / 홍덕태 중계부 / 신동훈 기술연구소 / 김영록 콘텐츠제작팀 / 양혜영 과학뉴스팀 / 김하나 편성제작팀 / 강현정 해외방송팀 **사외유공자** 이원경 심의팀 / 장병영 신림청 / 박한철 (주)씨앰비 / 궤재균 (주)서경방송 / 김영진 (주)엘지유틸러스 / 채학석 (주)케이티스카리아이브

4분기포상

특종상 금상 박순표 정치부 장성택 실각 및 측근망명 요청 보도 / **특종상 은상** 국회팀 정치부 국회정상화 협상 타격 단독 보도 / 이강진 정치부, 조임정 사회부, 유석규 영상취재부 블랙야크 회장 항공사직원 폭행 보도 / **특종상 동상** 조태현 사회부, 최윤석, 유석규 영상취재1부 아이스하키 대표 선발 및 임시비리 연속보도 / 조태현 사회부, 최윤석, 유석규 영상취재부 스미싱 진화, 카톡 피해 취재보도 / 이경제 스포츠부 전격해임 두산 김진욱감독 인터뷰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이문세 이승주 영상취재2부 YTN스페셜 독도예살다 제작방송 / 유창림 사이언스TV본부 콘텐츠제작팀 '한국인의 맛' 프로그램 시리즈 52편 **공로상** 정보시스템팀 APT 대응 솔루션 교환공로 도입 / 김은주 재무회계팀 재무적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 이철세 신사육간담추진단 YTN미디어센터 건립의 성공적 완성 / 이인규 마케팅3팀 광고매출 목표 달성 / 콘텐츠TF팀 카톡 친구맺기 통한 생방향 소통채널 강화 / 이양희 편집1부 뉴스 오 늘1부 확대개편 / 인프라팀 DMB송중계망 독자운용, 사업수지 개선 달성 / 김진국 송출기술부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사고 현장중계 / 김한철 기술연구소 시청률분석용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 김인현 글로벌기획팀 디렉TV 계약 체결 및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20억 확보 / 안미현 글로벌기획팀 YTN월드 런칭 성공과 위상인테나 설치 **표창장** 백미정 홍보, 시청자팀 견학 프로그램 진행 및 영화 PPL / 김윤정 방송행정팀 방송행정 업무 성실 수행 / 정준주 디지털콘텐츠팀 이은비 SNS 정보 업무 성실 수행 / 류정원 편성기획팀 중편 및 그래픽 업무 성실 수행

NOTICE BOARD

입사 홍승환 워터본부 편성제작팀 11.25 / 김경수, 우철호, 이형원, 임성호, 최아영, 이현우, 박유동 11.4 / **퇴사** 성유경 타워운영팀 12.31 / 정병화 정치부 11.17 / 임채훈 워터본부 편성제작팀 11.8 **전보** 나연수 문화부, 이강진 정치부 11.20 / 이기정 디지털뉴스센터장, 한상규 지역마케팅팀장, 이동열 콘텐츠사업팀장, 박경석 뉴스타원팀장, 박병한 편집위원, 강성웅(신사육)TF팀장, 디지털기획팀장 겸임, 김정희 디지털콘텐츠팀장, 최재용 홍보팀, 윤성희 마케팅2팀, 남궁용, 박상준 지역마케팅팀, 최성호 차장 문화사업팀, 오동건 사회1부, 최명신 차장 정치부, 강정규, 홍서곤 편집부, 이정미, 이강은 차장 편집2부, 이여진 편집3부, 박신우 편집4부, 정찬배 부장대우 앵커팀, 지경호 화면 R&D팀, 강영관, 이성은 영상취재부, 이기주 차장 제작기술1부, 최광희 차장 제작기술2부 11.11 / 권민석 콘텐츠TF팀 11.9